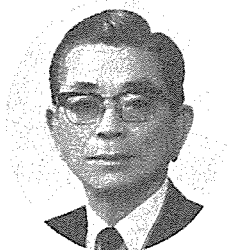


# 通信衛星 發射하는 그날을 기대

— 韓國 電子通信工學의 産 証人 —



李 載 坤 篇

## ◇ 새 學問에의 好奇心

시골서 小學校를, 中學을 서울에서 마치고 19-24年 日本留學을 떠난 것은 그때만해도 우리나라에는 工學界 高等교육기관이 全無하였기 때문이었다. 技術이라는 概念이 사회적 인식과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절이라 大學같은 高等교육기관이 있을 터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科學에 남달리 흥미가 높았던 탓으로 專攻을 理工界로 정하는 데는 나 자신의 결정이 절대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초 物理學을 공부하려던 계획은 우연찮게 電氣通信工學으로 방향전환이 되고 말았다.

日本으로 건너가 早稲田 제 1 高等學원 理科 3 年을 마친 나는 早稲田 大學에 物理學科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실망했다. 그때 早稲田 大學에는 電氣通信工學科가 있었다. 결국 나는 이 學科를 선택하기로 마음 먹고 입학하여 3 年간의 고된 학업생활을 보내게 된다. 생전 처음 보고 듣고 배우는 전기통신공학 분야라 나날의 학교생활은 흥미롭기만 했다.

그러다가 1930年 이 학교를 졸업하자 나는 곧 바로 귀국하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서울에 새

로운 職場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만해도 한국인으로 전기통신공학을 專攻한 사람이 태무했거니와 또 마땅한 자리도 그렇게 쉽지않을 때였으나 나는 대학 3 학년때 실습차 귀국하여 총독부 체신국에서 2 개월, 京城放送局에서 역시 2 개월간 실습을 한 일이 있어 이것이 인연이 돼 1930年 체신국에 들어 갔다.

졸업이 가까워 졌을때 이 두곳에서 연락을 받고, 나는 교수님들과 상의한 후 체신국을 첫 직장으로 정했는데 이것이 나의 人生行路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電氣通信분야는 그야말로 유치하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서울長安을 통털어 電話加入者는 약 8 천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도 원시적인 手動式 교환 전화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 人生行路의 계기 준 취직

우리나라의 通信이 오랜 잠을 깨어나 뭔가 近代技術의 初入 구경을 하게된 것은 아마 滿洲事變이후가 아닌가 싶다. 日本이 交戰國이 되

어 통신설비가 급작스레 대폭 필요하게 되고, 또 이 모든 통신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방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전기 통신학계를 새롭게 정립해야할 책무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잊지 못할 분수령이 되었다고 하겠다. 일제치하의 우리나라 통신기술계에는 나 혼자만이 외롭게 고급기술인으로 있었으나 해방을 맞아 나는 먼저 우리의 통신관계 기술자를 규합하기 위해 1945년 10월경엔가 제일 먼저 朝鮮電氣通信學會를 결성한 것이다.

창립멤버는 당시 체신, 교통부처에서 일하던 몇 사람이었는데 부득이 내가 회장을 맡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체신부에 통신관계 부서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워낙 사람이 없던 때라 사람 위주로 3개 課를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大學으로 자리를 옮긴것은 이때로부터 1年후였다. 당시 서울大工大에는 金東一 박사가 학장으로 제쳤는데 工大에 통신공학과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46年, 학교로 자리를 옮겼는데 교수로는 趙正萬 선생(후일 建國大에서 정년퇴임)과 朴鍾洙 선생 이렇게 두 세사람뿐이었다. 학생이라야 고작 20명이 될까말까였고 한동안 지원자도 많지 않았다. 당시 電氣 분야 교육과정은 “強電” 통신분야는 “弱電” 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強電” 쪽이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았다. 요즘처럼 電子通信분야가 발달된 것과 비교하면 今借之感을 느낄 뿐이다. “弱電”을 修了하면 갈 곳이라곤 체신부서뿐일때니까 그러했다.

내가 다시 체신부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1949年의 일이다. 체신부에 電氣시험소가 발족되어 그 初代所長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물리칠 수 없어 겸직이라는 조건부로 근무를 시작했으나 몇달후 6.25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통신발달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었다. 전란으로 80%에 달하는 전선시설이 파괴되었는바 이의 복구가 초미의 급선무라 자연 학교 일 보다 체신부 일에 매달리지 않을수 없었다.

정부는 3개년계획으로 전신전화업무 복구사업을 떠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원조를 해주는 美國측에서는 6.25당시의 시설 수준으로의 原狀복구를 요구해 옴으로써 우리측은 이왕 복구하는데 新式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 작전을 벌여 결국 우리의 주장이 관철된것을 지금도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겨우 龍山, 東大門전화국의 교환기를 당시로서는 신식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 ◇ 國際기구 加入한 보람

해방이 되고 우리 손으로 國際통신업무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있을수 없는 순간이었다. 일제하에서 국제통신은 꼭 日本을 거쳐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해방후 우리의 국제통신은 때가 軍政때여서 처음엔 美國 RCA社가 나와 代行을 했다. 1948年 경인가 우리 政府가 이를 인수하여 한 2년 가까이 운영했으나 다시 6.25로 모두 깨어지고마는 비운을 맛보았다. 6.25동란중이던 1950년 12월, 당시 RCA社가 美國과의 연락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無線機 1대를 11萬 달러에 구입하는데 성공하여 이를 釜山에다 설치하고 美國과의 통신재계가 된 것이 1951년 1월 5일로 기억된다. 이 無線受信所는 釜山의 下端이라는 곳에 天幕을 치고, 또 送信所는 龜浦의 한 국민학교 교실을 빌어 업무를 보았다.

6.25의 渦中에서도 우리나라가 國際電氣通信聯合(I. T. U)에 會員으로 加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이 국제기구의 첫 總會는 1952년10월 알제틴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는데 韓國代表는 나와 崔建씨(당시 체신부 電務副局長)두사람이었다. 두사람 다 政治에는 문외한이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기 전 外務部에 아무래도 정치문제가 나올것 같으니 外交官 한사람을 함께 보내달라고 했더니 卞榮泰의무부장관이 “조금도 어려울게 없다. 당신들의 뒤에는 3천만이 있다는 걸 알고 하시오”이렇게 격려해주는 바람에 우리들은 용기백배하여 장도에 올랐다.

그러나 會議벽두부터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소련등 共產圈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괴뢰정부 운운하며 터무니 없이 헐뜯기 시작하더니 끝내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우리 대표단은 즉각 반박연설을 했다. 議長은 투표를 지시했다. 결과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회원자격을 재확인, 천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관계 문서에 우리가 사인하려하자 또 공산국가들이 항의소동을 벌였다. 그들의 주장인 즉, 대한민국의무부장관 위임장은 무효라는 것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의 연속이니 다른 자유진영 대표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기에 바빴다. 이것도 결국 다수결로 재투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이 만방에 천명된 것이었다.

그후 5년후에 다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신관계국제회의가 열려 한국대표로 참석했더니 그때는 공산권국가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共產圈대표들은 또“이 회의에 南韓대표만 참석했는데 北韓 대표도 참석시켜야 한다”며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때 英國대표가 항가리 代表權문제와 결부하여 항의연설을 하자 이들은 쑥 들어가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해도 우리의 国力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 電子工學의 비약적 발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초창기의 韓國電氣通信學會는 너무나 그 토대가 미약한 가운데서 회원이나 회비문제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음을 느낀다. 당시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저 전공하는 사람들끼리 친목이라도 도모할수 있었던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휴전이 되고 전란의 상처가 아물면서 한국전기통신학회의 名稱이 韓國電子工學會로 바뀐것은 電子工業의 발달이 가져다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이런 변화가 서울大工大의 통신공학과를 전자공학과로 바꾸는 영향을 준것

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초창기부터 전기통신공학회를 이끌어 오면서 6.25를 거쳐 훗날 전자공학회로 될때까지 약 12년간을 회장으로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맡아해오면서 우리의 전자통신공학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国力이 신장됨을 보아 왔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學界는 學術誌도 알차게 잘나오고, 학회도 회원들의 높은 참여속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찌기 鎭공團時代에 학문에 발을 들여놓은 후 트랜지스트時代를 거쳐 현대의 눈부신 IC時代에 까지 살고 있는 나는 무척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미력이나마 이 나라 통신전자학계와 산업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었음을 보람으로 간직하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通信衛星을 발사하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속에서 이 회고담을 끝낸다.

### 略 歷

- 1905. 3. 13 平北雲山출생
- 現 住 所 서울, 鍾路區梨花洞 5-10 (전화762-3787)
- 1930 日本早稻田大電氣工學科卒
- 1930~59 總督部遞信局근무시작, 해방후는 電務局長 (46년), 서울大教授 (45년) 遞信部電氣通信試驗所 소장역임
- 1946~63 大韓電子工學會會長
- 1967 科學技術振興委專門委員
- 1967~79 商工部工業標準審議會委員長
- 1968~70 韓國規格協會會長
- 現 在 同和電子工業株式會社會長
- ▲ 賞 勳 第2回 科學技術賞 (1969)  
大統領表彰 (1971)  
國民勳章 冬栢章 (1972)  
國務總理表彰 (1975)